

전북 제조혁신의 날개를 달다

도,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 성과보고·현장견학 가져

전북도는 5일 중기부, 전북지방중기청, 익산시, 전북테크노파크, 기업단체 등과 함께 익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주)타인에서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 성과보고 및 현장견학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범 스마트공장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 싶은 기업이 현장견학과 벤치마킹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롤모델 기능을 하는 공장이다. 중기부에서 전국에 13개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는 2개 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대우전자부품에 이어 전북 2호로 시범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주)타인은 로봇자동화라인, 품질관리(SPC), 재고관리(WMS) 등 레벨 3수준의 시스템을 완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 7% 증가, 불량률 35% 감소, 납기 50% 단축 등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

와 산업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도내 기업에는 2018년까지 214개가 구축되어 있으며, 2019년부터 92개 기업을 대상으로 도비 15억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중기청 및 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스마트제조 혁신센터 운영 등 추진 체계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통해 40개 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

전북도는 중기부, 전북테크노파크, 시·군 등과 협력해 이번 시범공장 구축을 계기로 스마트공장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이 산업현장 곳곳에 뿌리내리고 지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자

발적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5월 제조현장 스마트화 비전 제시 및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8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업무협약, 8~9월 시군 순회 설명회 등 기업 참여 유도과 스마트공장 구축 불 확산에 매진해 왔다.

향후 내실있는 시범공장 벤치마킹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설계,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에서 ICT 기술을 접목한 자동화가 비용 절감과 함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 우병기 전라북도 정부무부지사는 "도내 기업들이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길 원한다면 스마트공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편하게 일하면서도 생산성까지 높이는 일석이조의 혁신을 이루고 저비용·고효율의 공정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가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도 전북도 유망중소기업 18개사에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전달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도, 유망중소기업에 인증서 수여

전북도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도 전북도 유망중소기업 18개사에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전달했다.

1999년 시작되어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전북도 유망중소기업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제품이 참신하고 기술력이 뛰어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중소기업으로 발전시키는 중소기업 성장의 요람이 되어 왔다.

이날 인증서를 수여받은 유망중소기업은 (농)국순당고창명주(주),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엔에스비, 대왕제지공업(주), 두영기전 주식회사, 미소드림영농조합법인, 신성기계공업사, (유)

아리울수산, (유)신정주포장, 주식회사나우리, (주)에스엔피, (주)더스산업, (주)명일정공, (주)삼보축염, (주)신영목재, (주)찬한음식, 주식회사삼조이농업회사법인, (주)피앤엘세미, (주)세지테크 등 18개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도에서 운영하는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3억원에서 5억원까지, 이차보전 2.0%에서 3.0%로 상향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전라북도 성장사다리 프로그램인 선도기업, 도약기업 선정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유망중소기업 인증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선정된 유망중소기업 30개사에 경영안정자금 118억원을 이차보전 3%로 융자지원 했다.

그동안 선정된 유망중소기업은 이런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었다. 완주 산단에 위치하여 광반도체를 생산하는 (주)디텍은 2003년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후 2007년 코스닥 상장, 2014년 정부의 월드클래스300에 선정되며 기술경쟁력과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다.

우병기 도 정부무부지사는 이날 참석차 유망중소기업 임직원에 축하의 말을 전하며 "도는 전북민의 특화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촘촘한 단계별 지원사업과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정부, 멧돼지 돼지열병 방역에 363억 긴급 투입

정부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총 363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256억 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비 108억원을 합해 총 363억원을 감액 우려 멧돼지의 이동 차단과 서식밀도 저감을 위한 포획 강화에 쓰게 된다.

기간 재단기금 등 자체 재원으로 멧돼지 방역·포획을 해온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장기화하자 재원 부족으로 애로를 겪어왔다.

지역별 사용 용도별로 보면 감염 멧돼지를 가두기 위해 아프리카돼지

열병 발생 지점을 2단으로 둘러싸는 '1·2차 울타리 설치'에 109억원을 투입한다. 접경지역 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할 동서 광역 울타리 설치에는 87억원을 쓴다. 동서 광역 울타리는 지역지물과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등 자연차단을 포함해 총연장 약 326km 이고, 실제 설치 길이는 약 193km다.

전국적인 멧돼지 포획 활동 장려를 위해 1마리당 20만원의 포획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의 총 규모는 60억원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인접 지역 13개 시·군에 포획을 250개와 포획트랩 4600개를 설치하는데 30억원을 투입한다.

이날 선정관리위원회에서는 현지실사를 다녀온 선정위원의 브리핑을 통해 상품경쟁력 및 시장반응, 기업경영인의 기업관 및 의지, 시설 및 위생환경, 적정 원재료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도지사인인증상품의 브랜드에 걸맞는 우수한 상품을 선정하기 위해 수고한 결과 '농축수산물 분야 8개, 전통 가공식품 분야 19개, 공산품 분야 6개 등 총 33개 상품'을 최종 선정했고 인증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2020년 도지사인증상품 33개 최종 선정

전북도가 도내 생산제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33개 상품을 2020년 전북도지사인증상품으로 최종 선정했다.

전북도는 지난 4일 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최종 회의를 통해 43개 상품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마치고 면밀한 검증과 심사 평가를 통해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33개 상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14일 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 선정기준을 확정하여 2020년도 도지사인증상품 선정 계획을 7월 1일에 공고했다. 시·군으로부터 신청 추천된 46개 상품에 대하여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및 품질인증, 매출액 등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한 후, 2차 선정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현지실사 대상 43개 상품을 선정하였고, 9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6주간 현

지실사를 추진한 바 있다.

이날 선정관리위원회에서는 현지실사를 다녀온 선정위원의 브리핑을 통해 상품경쟁력 및 시장반응, 기업경영인의 기업관 및 의지, 시설 및 위생환경, 적정 원재료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도지사인증상품의 브랜드에 걸맞는 우수한 상품을 선정하기 위해 수고한 결과 '농축수산물 분야 8개, 전통 가공식품 분야 19개, 공산품 분야 6개 등 총 33개 상품'을 최종 선정했고 인증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이다.

/김진성 기자

사회적경제조직, 정부·지자체 사업 참여 늘린다

앞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부·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사회적 경제란 일자리 창출 등 공공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다.

이 방안은 국정과제이자 정부 핵심정책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민간 주도·지역 기반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3개 분야 60개 과제를 담았다.

분야별로 보면 '지역의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 추진 계획을 세우고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단체장 중심의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중앙부처 사업 공모 시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교육 이수율 반영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도 준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사회적경제 조례

와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사회적경제 전문직위 운영을 '인사분야 지침'에 반영하고, 지역의 민·관이 모여 정책방향을 협의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제도화한다.

현장 접점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기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기관 간 기능 조정·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중간지원기관이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기관이나 마을기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을 지칭한다.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늘린다. 버려진 국·공유 시설의 활용 지원도 확대한다.

행정서류 작성 부담을 덜어준다. 사업결산보고서를 결산보고서로 대체하고, 시스템을 연계해 전산망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하며, 사업지침을 개정해 실효성이 낮은 서식을 제외 또는 간소화하게 된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맞춤형 인재 양성

에 나선다. 중앙정부가 대상별 표준교육안과 전문강사 데이터베이스(DB)를 지자체에 보급하면, 지자체가 기초 소양교육 및 실무교육과 취·창업을 세분화해 추진하게 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난 해소를 위해 사회적가치를 평가해 금융지원에 반영하는 '표준 평가체계'를 마련·운영하고, 공공·민간 자금을 활용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투·융자하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중계해준다.

경쟁력을 가진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공공기관 우선구매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교육청까지 포괄해 시행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정책수혜대상을 자활기업까지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대규모 계약에 입찰할 수 없는 영세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간접구매도 늘려 나간다.

정부는 이 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가치를 구현하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꿈을 키워주는 회원 모집(무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 국제여가문화협회(봉숭아학당) 전주학당
- 도내 각 평생교육원 강사
-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사무처장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 이사
- 도내 각 기관, 단체, 복지관 특강
- 웃음치료사, 노래강사, 스피치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난타지도사 등

강의분야: 웃음치료, 행복노래, 치매예방, 민요율동, 생활체조, 난타, 레크

※ 참고

- ① 각 분야 자격증 희망자 취득가능 상담 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② 남녀, 노소 누구나 회원분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세요
- ④ 꿈을 키워주는 학습의 길이 있습니다.

국제여가협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201, (3층)
(바울센터 옆 텍시양복점 건물)
(H · P : 010-2078-4810)

스피치. 면접. 시낭송. 웃음치료 (1,2월 방학특강)

44년의 전통과 경험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지도하는 강사진으로 구성된 스피치, 면접, 연설, 웅변, 웃음치료 등을 지도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바랍니다. 스피치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과	성인반, 주말반, 개인지도반
정	중, 고등반, 초등, 유치반 (차량운행)
구	취업면접반 (개인지도)
분	회장 인사말, 선거연설 개인지도

· 전주교육대 겸임교수
· 전북대 토론과면접 담당교수 역임
· 전북대, 우석대, 전주교육대, 군산대 과학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 전북 최초 스피치1호 지도자
· 기관, 단체특강 600여회
· KBS TV, MBC TV, JTV 출연자

◎ 대학 평생교육원(지역별 2020년 1학기 모집도 합니다)
전주, 완주, 진안(전주에서)
남원, 장수, 순창지역(남원에서)
군산, 부안지역(군산에서)
경채, 완주지역(전주에서)
익산지역(익산에서)
정읍, 고창지역(정읍에서)

(사)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부설)
(사)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지부 (부설)
한국스피치 · 면접 · 시낭송 아카데미

위치 : 금암동 백제직업전문학교 옆 삼거리 5층
전화 : (063) 285-6676, 231-6669 (주, 야)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